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3. 17.(월) 11:00 < 3.18.(화) 조간 > 배포 2025. 3. 17.(월)

‘25년 기회발전특구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본격 가동

- 특구 내 투자기업의 안정적 인력 공급을 위해 특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 ’25년 13개 기회발전특구 내 89개 투자기업의 재직자 및 신규 인력 총 2,507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11(화), ‘2025년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구 기업의 재직자 및 신규 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지역대학 등과 연계하여 설계하고 운영한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48개 지구 중 19개 지구가 신청하여 이중 13개 지구*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사업비 52.5억원(국비 35억원(66.6%), 지방비 17.5억원)을 투입하여 2,500여명의 특구형 지역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선정지역(분야) : 대구(디지털, 첨단제조), 경북(바이오산업), 전북(모빌리티), 전남(이차전지), 경남(미래모빌리티), 울산(차세대이차전지, 주력산업첨단화), 강원(바이오・데이터 등), 세종(기술혁신), 부산(금융), 광주(모빌리티, AI)

이번 인력양성 프로그램에는 89개 기회발전특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며, 제조산업 AI·데이터 분석, 자율자동차 부품 설계 최적화, 미래 모빌리티 전환 부품 기술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 제조산업 AI 및 데이터 분석(대구), 바이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경북), 자율자동차 부품 설계 최적화(광주), 정유석유화학설비 안전 및 위험성 평가(울산), 배터리소재 분석(전남), 자동차 엔진 전자제어 및 통신(경남), 특장차 생산설비 보전 및 유지관리(전북), 디지털금융서비스 기획 등(부산)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회발전특구 지방투자 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투자 지역에서의 안정적 인력 공급이 최우선이다”고 언급하며, “기회발전특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내 인력 확보 및

지역인재 역량 강화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봉석 (044-203-4420)
		담당자	사무관	김은의 (044-203-44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2025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사업 선정 내역**

□ 선정지역 : 10개 시·도, 13개 기회발전특구

지역명	특구명	지원예산 (백만원)	교육수요(안) (명)	
		국비	재직자	신규인력
대구 (수성구, 달성군)	디지털특구	160	60	40
	첨단제조특구	340	140	60
경북 (안동시)	안동지구(바이오산업)	500	350	50
전북 (김제시)	모빌리티지구	240	140	60
전남 (여수, 순천, 광양)	이차전지지구	400	150	50
경남 (창원시)	창원지구(미래모빌리티)	300	60	130
울산 (북구, 남구, 울주군)	차세대이차전지 지구	220	220	200
	주력산업 첨단화 지구	130	300	20
강원 (홍천군)	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 ·데이터산업지구	170	75	20
세종 (집현동)	기술혁신지구	200	70	30
부산 (남구)	금융지구	266	50	70
광주 (광산구, 북구)	모빌리티지구	128.4	52	60
	AI지구	85.6	25	25
		3,140	**1,692**	**815**